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. 15.(금) 17:00 (총 5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한윤덕 주무관 함인화	전화번호	033-650-0347

월요일 출근길 많은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
- 17일 저녁~18일 오후 강원내륙과 산지 많은 눈, 폭설 주의
 - 강원내륙과 산지 5~10cm(많은 곳 강원산지 15cm 이상)
 - 18일 새벽~오전 강한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- 17일 또 다시 추위,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
 - 강원내륙과 산지 아침 최저기온 -12℃ 이하
 - 수도권·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



[1월 17일(일)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강원내륙과 산지에 17일(일)은 일시적인 추위가 찾아오고 17일(일) 저녁~18일(월) 오후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 특히, 18일(월)은 출근 시간에 눈이 내리는 곳이 많으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강원지방기상청은 16일(토)~18일(월) 오후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서쪽의 온난한 공기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다. 이 과정에서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.
- 17일 저녁~18일 오후에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지면서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겠고, 이 따뜻한 공기가 기존(15일 밤~17일 오전)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겠다.
- 특히, 18일 오전에는 북서쪽에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에 의해 눈 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러한 기압계 변화가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17~18일은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, 기상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.

[17일 저녁~18일 오후 눈 전망]

- 17일 저녁~18일 오후 강원내륙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17일 저녁부터 서쪽에서 온난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유입되어 밤에는 강원내륙과 산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다.
 - 눈 구름대가 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18일 오후에는 눈이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특히, 18일 오전에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는 강원산지는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.
 -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월요일 출근길에는 눈이 강하게 내리거나 밤부터 쌓여있던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지역이 많겠다.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<예상 적설, 17일 저녁(18시)~18일 오후(18시)>

- 강원내륙과 산지: 5~10cm(많은 곳 강원산지 15cm 이상)

- 또한, 강원지방기상청은 “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 변화가 평년보다 큰 상황”이라며, 매우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황에서 온난한 공기가 불어드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강한 눈 구름대가 자주 발달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17~18일에도 1.5km 상공의 온난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눈의 양이 많아지고, 바람이 지형에 부딪히는 곳을 중심으로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형이 복잡한 강원도는 인접한 지역 사이에서도 눈의 강도와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.
- 특히, 18일 새벽~낮에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말에 계속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통해 최신의 예상적설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추위 전망]

- 15일(금)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6일은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15일보다 3~8℃가량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, 강원북부내륙(철원, 화천)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,
-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17일(일)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 이하로 떨어져 추운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.
- 또한, 16~17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℃가량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- 18일(월)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유입되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19일(화)~20일(수)에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 이하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전망하면서,
- 수도권과 계랑기를 보온재로 감싸는 등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.

[강풍과 풍랑·너울 전망]

- (강풍) 현재 강원동해안과 산지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, 16일(토) 오전까지 바람이 35~65km/h(10~18m/s)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 - 강원산지에 위치한 터널에서는 입·출구간의 풍속변화가 매우 크겠으니,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 - 그 밖의 강원내륙에서도 30~50km/h(8~14m/s)로 강하게 불겠습니다.
 - 또다시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18일(월) 오후 ~ 20일(수) 사이에 강풍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
- (풍랑) 동해중부먼바다는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매우 강하게 불고, 물결이 2~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하여 15일(금) 18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.
 - 한편, 16일(토) 동해중부앞바다에도 바람이 30~45km/h(8~13m/s)로 강하게 불고, 물결이 1~3m로 높게 이는 곳이 있겠고, 동해중부먼바다의 풍랑특보는 19일까지 장기화 될 수 있으니, 해상안전에 지속적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(너울) 16일(토) 오전부터 18일(월) 오전 사이 강원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,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